

“소통·협업으로 새로운 청사진 제시하겠다”

취임 1주년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안정화·체제 정비 등 조직문화 개선 주안점
‘박서보 예술상’ 등 국내외 브랜딩 사업 추진
지역과 활발한 교류 통해 외연 확장 본격화

박양우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2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행보에 나선 박양우 대표이사는 그동안 조직 강화 및 경영 제도 개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준비 총력, 국내외 브랜딩 및 차별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현안들을 처리해 나갔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조직을 정비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국내외에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광주비엔날레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라는 경영 철학 아래 청사진을 구축하고 조직의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가동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온 속 가쁘게 달려온 1년이였다”고 회고했다.

박 대표이사는 ‘행복한 일터’로의 조직 문화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노사 화합과 직원 복지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해오고 있다”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문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역동적이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의 본연 임무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이숙경 영국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가 선임됐다. 이 예술감독은 선임 이후 지난 2월, 6월, 8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역과 세계의 평등한 연결성과 관계의 전환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전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외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박 대표이사는 “다른 세계적인 비엔날레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비엔날레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 광주정신, 광주비엔날레 브랜딩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5:1 8민주화운동 메니스트별전 개최 및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제정 등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를 높이고 광주비엔날레만의 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는 지역과 다층적인 협업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제5차 광주폴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역 작가의 국제화를 돕는 등 협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자문하고 있다”며 “미래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교류 창구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4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2024년 창설 30주년과 함께 2026년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변화 시점에서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광주비엔날레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다변화한다는 방안이다. 박 대표이사는 “내년 4월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내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며 “주 임무인 비엔날레를 비롯해 아카이브,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통과한 전시관 신축 사업 등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조선대, 외국인 유학생 졸업 축하 행사

조선대학교가 2021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을 축하하는 졸업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대학 국제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봉철 대외협력처장이 졸업 축하 인사말을 전했으며, 학부 졸업생 대표 왕정환(WANG JINGXIAN) 학생과 대학원 졸업생 대표 흑참란(HOK CHAMROEUN) 학생에게 축하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중국, 베트남, 몽골, 르완다, 인도 등 14개 국가의 학생들로 학부 졸업생 24명, 석사 졸업생 16명, 박사 졸업생 28명, 총 68명이다. /임재만기자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인재양성·상생·혁신大 도약”

GU 비전 선언·하계 교직원 세미나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이 25일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 혁신과 학생지원을 포함해 건강경영, 지역상생, 미래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는 5대 전략을 세웠다. 이날 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열린 GU 비전 선언식 및 2022년 하계 교직원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동진 총장은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광주대학교(We Light for You, Gwangju University) 슬로건을 발표하고 변화와 소통 확대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대는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발전하는 모

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구성원 소통과 협력 선진화를 위해 건강경영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 나눔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공과대학과 재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 육성, 학과 특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 미래기술 인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처우개선과 학생 중심의 생활·교육 공간 조성,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와 평생교육 기반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진 총장은 “학생들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진 교육을 도입하는 등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목표를 세우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만기자



녹색에너지연구원·영광군 ‘에너지신산업 발전’ 협약

전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이 영광군과 ‘노후 전력기자재 교체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 에너지 전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최근 영광군과 에너지신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지속 발굴·에너지 관련 우량 기업 유치 ▲지역사회 기여 등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와 영광군이 참여하는 ‘노후 전력기자재 교체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 전력기자재 교체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은 해외 수출을 위한 GIS, 케이블, 수배전반 등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이다. 국비 41억원, 지방비 18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전국 최초로 제조 조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협약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역량을 활용해 영광군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친환경에너지 전문 연구기관과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협업을 신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경찰, 보이스포싱병기고 택시기사감사장

전남경찰청은 25일 “예리한 눈썰미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포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와 B씨는 각각 택시에 탄 손님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다. 이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와 구례경찰서 경찰관은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수거한 조직원들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피해금 2천만원과 1억2천500만원을 각각 회수하는 등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오복기자



남부경찰, 교통법규위반 야간 단속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양우천) 교통안전계는 최근 효덕 교차로 주변에서 이륜차 폭주, 난폭행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남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소음 유발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대인기자



해남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해남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5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해남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5개 소로 도로부속물 노후·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제한속도 표시 여부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 불일치 여부 등이다. 공정원 해남경찰서장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을 지속적 점검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안전에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호남대 김벼리씨 ‘미스인터콘티넨탈 벨런트’ 1위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박연옥) 3학년 김벼리씨가 최근 개최된 ‘2022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벨런트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으며, 3학년 박수진씨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벼리·박수진씨는 전국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 수상으로 오는 26

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미스인터콘티넨탈 본선 최종대회 입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씨는 “항공서비스학과에서 배운 면접스킬과 이미지메이킹 수업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다가오는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얻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재만기자



담양 봉산면 연동마을 한성수씨, 수제 딸기잼 기탁

담양군 봉산면은 연동마을에 거주하는 한성수씨가 봉산면사무소에 수제 딸기잼 60병을 기탁했다. 7년 전 고향인 연동마을로 귀농한 한성수씨는 벼 수모작과 딸기 시설원예를 하는 영농 후계자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수제 딸기잼을 만들어 주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한성수씨는 매년 추수철마다 손수 농사지은 쌀(20kg)을 매년 30포씩 기탁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성수씨는 “군과 면사무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웃에게 받은 배려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어려운 이웃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광양경제청, 철강 분야 전문가 그룹 간담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최근 여수 베네치아호텔 회의실에서 2022년 광양경제청 철강 분야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발전 방향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LNG 터미널 입지 여건과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해양플랜트, LNG 병커링, 극저온 저장탱크, 기자재 등 연관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광양항 물동량 확대를 주문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이 신소재 고강도강 등을 활용한 철강산업 유망 분야 전략적 요충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대,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는 25일 “최근 기관공학관 1층 소강당에서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졸업생 대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사 졸업생 18명을 비롯해 석사 7명, 박사 5명 등 총 3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이종인 목포해양대 총동맹회장이 온라인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했다. 한원희 총장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해운업계를 새롭게 이끄는 리더로서 도전을 이어가는 현신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인사
- 전남도교육청
 - ◇3급 승진 ▲감사관 고재술
 - ◇4급 승진 ▲시설과장 김의근
 - ◇4급 신규임용 ▲홍보담당관 김학주
 - ◇4급 전보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행정과장 박진수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5급 전보 ▲시설과 시설1팀장 장우진
- 본사 손님
-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